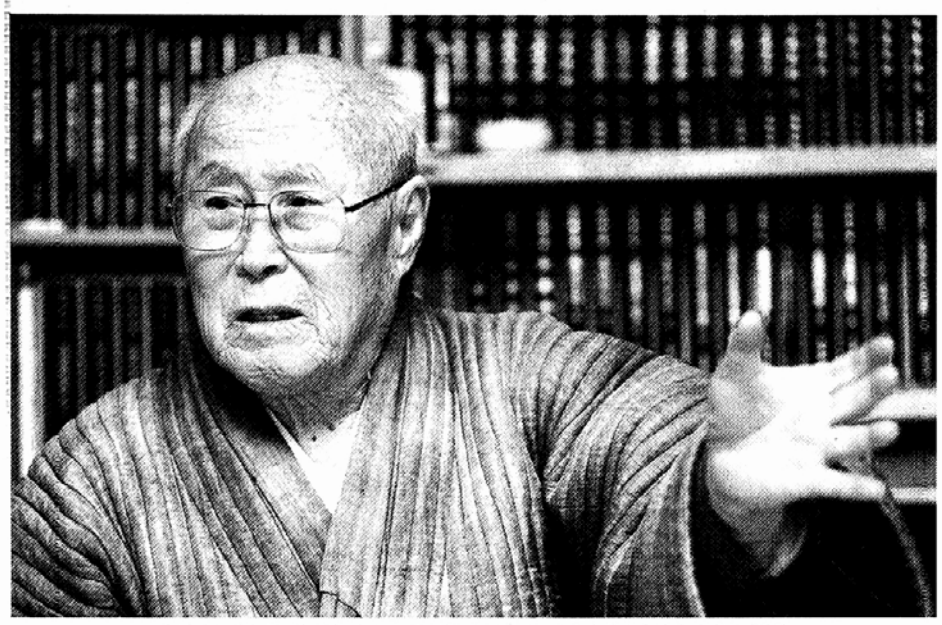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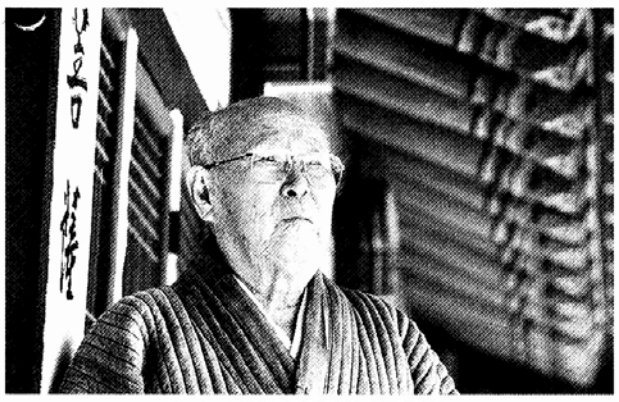
우선 '나'란 존재부터 없애야



◇태허 스님은 염불수행은 나란 존재를 없애고 아미타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염불수행은 정토의 집을 짓는 것이다.

화두 받는사람 근기에 맞게
'마음 정화' 이시대 가장 절실

세계 2백10억의 국토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곳을 골라 이상세계를 구현할 것을 서원하고 48대 서원을 세운 분입니다. 이 서원은 정토의 설계도인 셈이지요. 염불수행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정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염불왕생이라고 합니다. **염불수행자는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아미타불 존재에 의지해야 합니다.** 즉 몸과 음성 그리고 생각까지도 아미타불과 하나가 될 때 **참다운 염불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허 스님은 모든 수행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염불수행도 '나'라는 존재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불하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이 주신 육신과 음성 그리고 마음까지도 아미타불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님은 무조건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참선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염불이나 수행자 자신이 일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8원 가운데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란 서원이 있어요. 이는 **누구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념으로 염하면 오매일여가 되고 궁극에는 생사일여가 되는 법입니다.** 그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참선의 경우 화두가 항상 마음머리에 있어야 합니다. 시심마라는 생각, 그 생각만이 홀로 높아서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마저 사라질 때 무여열반이 되어 활연대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매일여가 되지 않고 화두만 붙잡고 망상만 부린다면 검은 산 밑의 마귀굴에 빠지게 됩니다."

태허 스님은 염불수행에서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크든 작든 세속의 바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심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염관, 염불, 염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토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염불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전공부는 염불수행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불 정근은 근본자성을 덮고 있는 망념의 먹구름을 조금씩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숙세의 업장들도 조금씩 소멸시켜 줍니다. 만약 경전을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옳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염불수행으로 평생을 일관해 온 태허 스님은 요즘 선지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자의 근기를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식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 뱃사공이었던 사람에게는 물과 관련된 화두를 주어야 할 것이고, 대장장이였던 사람에게는 불에 대한 화두를 주어야 공부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화두를 주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화두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캄캄하니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 있을 리가 있나요."

태허 스님은 이 한 가지만 더 알고 가라며 마음의 정화를 강조하신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정화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온 국토가 청정할 때 그것이 극락세계가 아닐까요."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태허 스님은?

총화종 종정… 89년 정토계 본원종 창종

191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으며, 27년 믄경 김용사에서 정경원 스님을 은사로 이화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이후 김용사 경흥강원에서 관응, 서암 스님과 함께 공부했으며,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마치고 문경 봉암사, 영주 부석사 예천 서악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다. 문경 김용사 경흥강원 강사와 김용사 중임에서 선방생활을 하는 등 교(敎)와 선(禪)을 겸수했다.

또한 스님은 천태종(초대 총무원장)과 태고종(총무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총화종(종정) 등에서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여러 종단을 거치면서 스님은 이 시대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쉬운 불교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스님은 지난 89년 정토종인 본원종을 창종하고 종정의 소임을 맡아 경북 예천 연방사에 주석하면서 염불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벽산스님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만 수행자들은 세상의 영화를 뜬구름같이 본다. 그들이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생사에 자재하고자 함이요, 한평생을 한 장 좌복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다만 깨달음을 향해 일체 욕망을 산문 밖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산문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사십여 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해가 더해 갈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먹빛 빨래에 풀 먹여 손질하는 일이 오십이 넘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인 터인데, 그것이 조금도 싫지 않으니 아마도 전생부터 익혀온 일인가 보다. 다행히 숙세의 선근이 있었는지 많은 선지식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으니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

나를 출가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속가로 종조부가 되는 청주 용화사 벽산(碧山)스님이다. 나에게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분이다. 벽산스님은 일제 시대 암울하기만 했던 소년시절, 절에 가면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지사로 입산했다. 앞으나 서나 경전을 읽었고 날이 갈수록 경전 읽는 일에 재미가 난 스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다가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날이 빈번했다. 법주사에 가서도 경전읽기에 몰두한 스님은 십대 말의 나이로 법주사 강원의 강사가 되셨으니 법주사 역사상 '최연소 강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일찍부터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도시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주 용화사 주지로 부임해 학생포교와 교도소 포교에 헌신했다.

대처와 비구가 싸움을 하던 정화 때는 "불교인끼리 싸우는 것은 자멸이 있을 뿐"이라며 화합을 주장했다.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대처든 비구든 싸움을 하면 스스로 불교를 갉아먹는 일이다. 불자로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사자몸 가운데 벌레다. 승가는 화합이 생명이니 절대로 싸워서는 안된다. 싸워서 얻은 힘은 싸움으로 망한다"라며 싸우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정화가 끝난 뒤 조계종 종회의 초대, 2대, 3대 종회의원이 되어 통도사의 조용명스님과 함께 화동파(和同派)의 기수가 되셨다. 항상 종단을 걱정하시고 젊은이들을 포교하는데 앞장서신 분이다. 또한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서 일찍이 학생법회를 시작했다. 그 학생회 출신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현재 재가법사로, 출가해 스님으로 전국에서 포교하고 계신다. 벽산스님의 자비심은 유별났다. 승속을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존경의 예를 다했다. 젊은 스님들을 만나도 먼저 삼배를 올리고, 본사의 스님들과 전화통화할 때는 전화기를 들고 "안녕히 계십시오"를 몇 번이고 거듭하며, 머리 숙여 절하곤 했다. "스님, 전화기에다가 절을 하면 상대방이 보기라도 합니까" 하면

"누가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면 내가 편안해 지니까 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나 허리 굽혀 절을 하는 스님은 걸인에게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예사였다. 초파일 때나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걸인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 스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스님의 주머니는 돈이 들어 있을 겨를이 없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지

10대에 법주사강원 강사
사상범 교화시켜 제자로

만 권속들에게는 엄격하여 백 원짜리 하나라도 이유 없이 쓰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연세가 많으셔서도 매주 교도소에 가서 교화하셨다. 사상범을 교화해 출가시켜 제자를 만들기도 했다.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감하는 죄수들은 대부분먼저 스님을 찾아온다. 차비를 얻어가고 목욕비를 타 간다. 스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주시는데 부엌 사람들에게는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어서 짜증을 내면 "오랫동안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먹어 보았을 텐데 자비심을 배운다는 사람으로 어찌 그리 인색하냐?"며 오히려 타이르시곤 했다.

내가 강원을 졸업하고 인사차 들렀을 때 "너 정말 중노릇을 할거냐?"고 물으셨다.

"중노릇 말고 다른 것 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드렸더니 스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이놈아, 중노릇을 하려면 여자를 조심해라!" 하셨다. (계속)

이번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설곡스님은 1951년 경북 상주生으로, 64년 청주 용화사 수도원에서 출가, 70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했다. 70~72년 해인사에서 안거를 지냈고 74~85년 대구 운흥사 주지, 86~95년 대만 홍법원장을 역임했다. 91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미술학부 졸업, 95년 동 대학 예술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 중앙승가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북대, 효성대에서 강사를 지냈다. 스님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런던 연화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구미 영명사 주지로 있다.

범음대학 2002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50명
2학년	각배과	50명
3학년	영산과	50명
이론	불교의식각론	-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2월 14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2년 3월 3일

7. 입학일 2002년 3월 6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02)392-3234, 종무소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